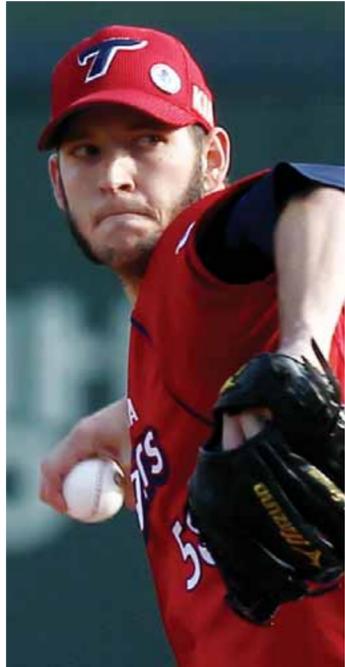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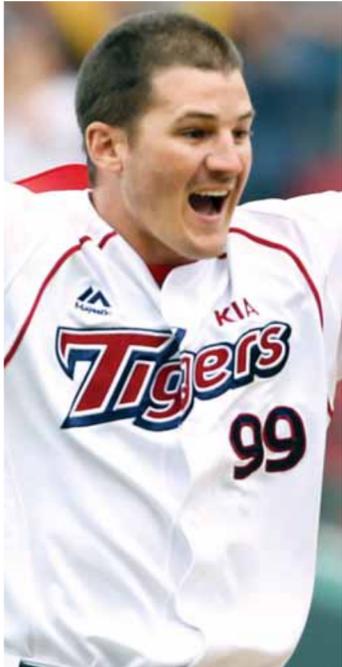


형님의 한 수 '용병 트리오'



스틴슨



필



험버



한국어 배워 농담 건네고 게임하며 동료들과 서먹함 줄여
필·스틴슨·험버, 실력·인성 합격...KIA 5할 승률 버팀목

복덩이 외국인 선수들이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모범생' 필과 '신입생' 스티븐, 험버로 외국인 선수 3인방을 구성했다. 험버의 성격이 아찔기는 하지만 성실하고, 화기애애한 복덩이 같은 선수들이다.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새로운 문화와 팀에 어우러진 못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또는 외국인 선수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구단이 곤경 속살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KIA는 다른 팀에서도 부러워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외국인 선수 3인방을 구성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가족같이 행하면서 타국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3인방이다. '자식'이라는 공통분모도 이들을 한데 묶고 있다. 만형 험버가 3살이 된 아들을 두고 있고 스티븐과 필도 돌아가지 않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덕분에 한국으로 건너온 아내들끼리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한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데도 스팀없었다. "안녕하세요"라는 발음은 한국 사람 못지 않다. 식사 시간이면 나란히 서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한다.

특히 올해로 한국 2년차를 맞은 필의 한글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한글을 독학한 필은 막힘없이 글자를 읽고, 발음을 한다. 라인업 발표도 문제없이 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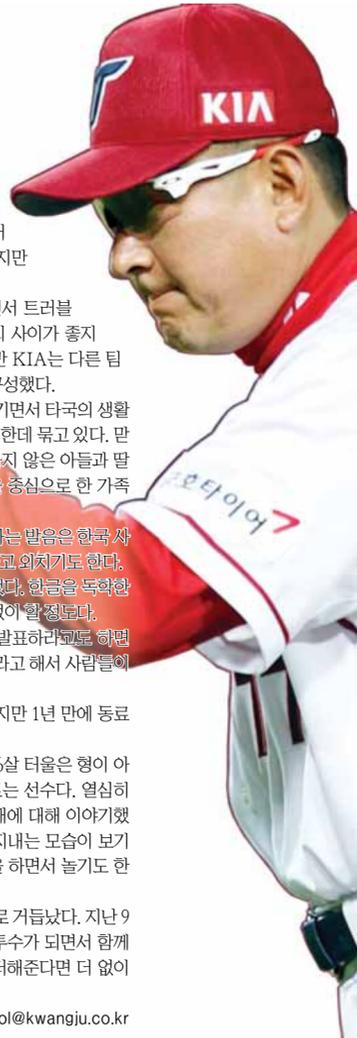
김원섭은 "원정가서 마팅 시간에 라인업을 주면서 필에게 발표하라고 하면 하면 잘 읽는다. 한번은 내 이름을 발표하면서 '명품 다리 김원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웃느라) 쓰러졌다"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이름 대신 동요의 등번호를 언급했던 험버지만 1년 만에 동료의 이름은 물론 별명까지도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김원섭은 "필은 나를 '원섭 형님'이라고 부른다. (이)성우가 6살 터울은 형이 아니라 형님으로 불러라고 알려줬다. 성격도 좋고 야구밖에 모르는 선수다. 열심히 하고 야구 실력도 좋다. 예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애뜻한 후배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세 선수 모두 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 원정가서 보면 셋이 한방에 나란히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놀기도 한다"고 웃었다.

꾸준한 필에 이어 스티븐도 초반 부진을 털고 믿음직한 선수로 거듭났다. 지난 9월에는 선발 복귀전을 치른 험버가 필의 역전 만루포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함께 웃기도 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험버가 다음 등판에서 믿음을 더해준다면 더 없이 좋을 복덩이 3인방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V10 배터리' 유동훈·김상훈 은퇴

13일 삼성전서 기념식...2군·재활군 코치로 활동

'V10 배터리' 유동훈과 김상훈이 정든 그라운드와의 작별을 고한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2009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인 유동훈과 김상훈의 은퇴식을 연다. '아디오스 KIA TIGERS V10 duo'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은퇴식은 V10의 주역인 두 사람을 추모하고 이들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15년 이상 타이거즈맨으로 살아온 유동훈과 김상훈의 활약을 기리고 코치로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의 이날을 응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은퇴식은 경기 전과 후에 진행되며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식, 기자회견 K5 통과 투구·포구 도전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유동훈·김상훈의 가족이 동반 시구자로 나서며, 유니폼 반납 및 그라운드 퍼레이드, 은퇴사, 선수단 행가래가 이뤄진다.

선수단은 이날 유동훈의 현역시절 등번호인 22번과 39번으로 만든 은퇴 기념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동료와 선수가 김상훈과 유동훈을 대신해 마지막 경기를

뒀다는 의미다.

전광판 아래에는 두 선수의 번호에 맞춰 2239개의 풍선으로 기념 아치를 설치한다. 이날 교체 시간에는 전광판을 통해 선수단 및 지인들의 은퇴 기념 메시지가 상영된다. 또 이날 입장권은 유동훈과 김상훈의 현역 시절 승리 세리머니 사진을 배경으로 특별 제작되며, 관중들에게 'Adios V10 Duo'가 적힌 노란 손수건과 장미꽃 1500송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코치로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은 독특한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마운드와 홈 플레이트 사이에 기아자동차 K5 새 모델을 두고 유동훈이 양쪽 창문 사이로 공을 던지고, 김상훈이 이를 받아내게 된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도전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독특한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한 번도 팀을 떠나지 않은 KIA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2009년에는 철벽 마무리와 든든한 안방마님이자 주장으로 타이거즈의 10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장충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9년 2차 4순위로 타이거즈맨이 된 유동훈은 11시즌 동



은퇴식 기념 패치

안 465경기에 등판해 36승 59세이브 39홀드 평균자책점 3.92의 성적을 남겼다.

1996년 광주일고 시절 2차 우선지명을 받은 뒤, 2000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고향팀에 입단한 김상훈은 15시즌 동안 1388경기에 출장해 타율 0.242, 67홈런, 458타점, 376득점을 기록했다. 2009년에는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은 뒤 지난달 귀국했으며, 2군과 재활군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형, 1번 타자 나지완에 "검색어 오르겠어요"

덕아웃 특·특

▲"틀에서 벗어나세요." = 화제의 라인업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10일 넥센의 고졸 루키 김택형을 상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라인업을 내어놓았다. 나지완을 리드오수로 뽑아 김대우를 2번에 배치했고, 김주찬-필-김주형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빠른 발을 가진 선수로 테이퍼 세타진을 구성하는 보통의 라인업과는 거리가 먼 라인업이었다. 신종필의 컨디션 난조, 이범호의 부진 속에서 짜여진 공격력 극대화의 라인업. 여러동절해 하던 취재진을 향한 베테랑 김원섭의 한마디는 "틀에서 벗어나세요. 편견을 버리세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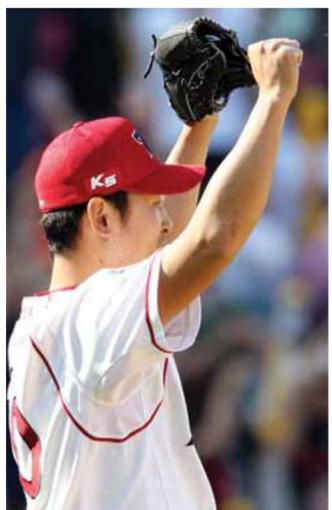
▲"실시간 검색어 2위에는 오르지 않을까요?" = 나지완을 리드오수로 내세운 10일 라인업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우리경기대만의 시선으로 라인업을 점한 선수들. 김주형은 "나지완이 실시간 검색어 2위에는 오를 것 같다"고 웃었다. 1번 타자로 나선 나지완의 반응은 "잘할 수 있다"였다. 김기태 감독은 "나지완이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라인업을 짜면서) 수비 부분도 생각했는데 상대가 신인급 투수라서 여러가지를 고려했다. 나지완의 출루율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다.

▲"너의 경기라고 하셨다." = 위기의 험버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험버는 지난 9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5이닝 동안 8피안타 3사사구를 허용했지만

4탈삼진과 2개의 병살플레이로 3실점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시즌 3승을 기록했다. 큰 위기는 없었다. 5-3으로 앞선 5회 선두타자 스나이더의 안타에 이어 박병호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마운드로 직접 올라갔던 김기태 감독. 강한 수순인 것 같았지만 김 감독은 무언가를 이야기 한 뒤 그대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후 험버는 유한준을 유격수 직선타로 돌려세우고, 김민성과 이택근을 각각 삼진과 2루수 직선타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지킬 수 있었다. 험버는 경기가 끝난 뒤 "감동받아서 이런 너의 경기다. 자신있게 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밥을 사라고 해야겠어요." = 9일 경기의 주인공은 필이었다. 필은 0-3으로 뒤지던 4회 2사만루에서 넥센의 두 번째 투수 김대우를 상대로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경기가 7-4로 끝나면서 위기의 험버는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험버는 "필이 다시 또 쳐줬다"며 고마움을 표실했다. 필은 험버의 첫 등판 경기였던 3월29일 LG와의 경기에서도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며 팀에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다. 험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필은 "밥을 사라고 해야겠다"고 웃었다. 필은 또 "부모님이 경기장에 오셨는데 주자가 있던 첫 두 타석에서 안타를 못 쳐서 걱정을 했다. 팀에 도움이 되자는 생각이었는데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컴백 윤석민 다시 '별' 될까

프로야구 올스타 팬투표 시작...KIA, 양현종·김주찬 등 후보에

'별 중의 별'을 뽑는 프로야구 올스타 팬 투표가 시작됐다.

오는 7월18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2015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를 선정하는 팬 투표가 6월 10일 시작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각 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120명의 포지션별 올스타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팬 투표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KBO 앱'과 'KBO S-TATS 앱'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수단 투표도 진행된다. 선수단 투표는 KBO 리그 엔트리에 등

록된 10개 구단 감독과 코치,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6월 중 각 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투수), 심동섭(중간투수), 윤석민(마무리투수), 이흥구(포수), 필(1루수), 최용규(2루수), 이범호(3루수), 강한울(유격수), 김주찬·김원섭·나지완(외야수), 최희섭(지명타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KBO는 매주 월요일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를 합산한 팬 투표 중간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70대 30 비율로 환산한 최종 집계 결과는 7월 6일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병역혜택 선수 5년간 국제대회 참가 의무화

KBO, 2018년 자카르타 AG부터 적용

KBO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결정했다.

'소급적용'은 없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이 규정에서 자유롭다. KBO 관계자는 10일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팀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BO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 보상 규정 등을 논의하면서 국가대표 출전 규정도 함께 다뤘다. 야구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에서 4강 신화를

쓴 선수들도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이는 한시적이었다. 2009년 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병역에 관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야구 선수들에게 가장 큰 당근은 병역 혜택이다. "2년 빨리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 셈이니, 1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에는 '미필자 우대' 등의 논란이 있었다. 병역 혜택이 없는 대회에 대표팀에 선발되고도 부상 등으로 빠지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제대회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의 이후 열리는 국제무대 참가 여부에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KBO 관계자는 "2018년 자카르타 대회부터는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이 미리 이런 규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았더라도 부상 등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